

10.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충남TP 정책기획단 양성준 선임연구원

1. 대내외 여건 변화

-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추진
- 선정 과정에는 신성장동력 선정기준, 선정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의 기준이 적극 반영됨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제시된 신성장동력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음
- 수요측 추진전략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등을 조기 시장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공급측 추진전략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역량 집중,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분야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이 근간을 이룸
- '09년 5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09~'13) 24.5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발표
- 동 계획은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 종합 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4가지 계획으로 구성

- 기술전략지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62개 분야를 스타 브랜드(Star brand)로 선정하고, 스타 브랜드별 1,200여개 핵심기술과제를 도출
- 세부추진계획 : 신성장동력별 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초기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스타 브랜드를 조기 상용화 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 추진
- 인력양성 종합계획 :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특화 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중소기업 지원방안 : '13년까지 신성장동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 개발, 상용화, 자금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 이 중 R&D 과제에 14.1조원, 재정사업, 제도개선, 시장창출 등 비 R&D 과제에 10.4조원이 소요될 전망

[3대 분야별 정책과제 수 및 투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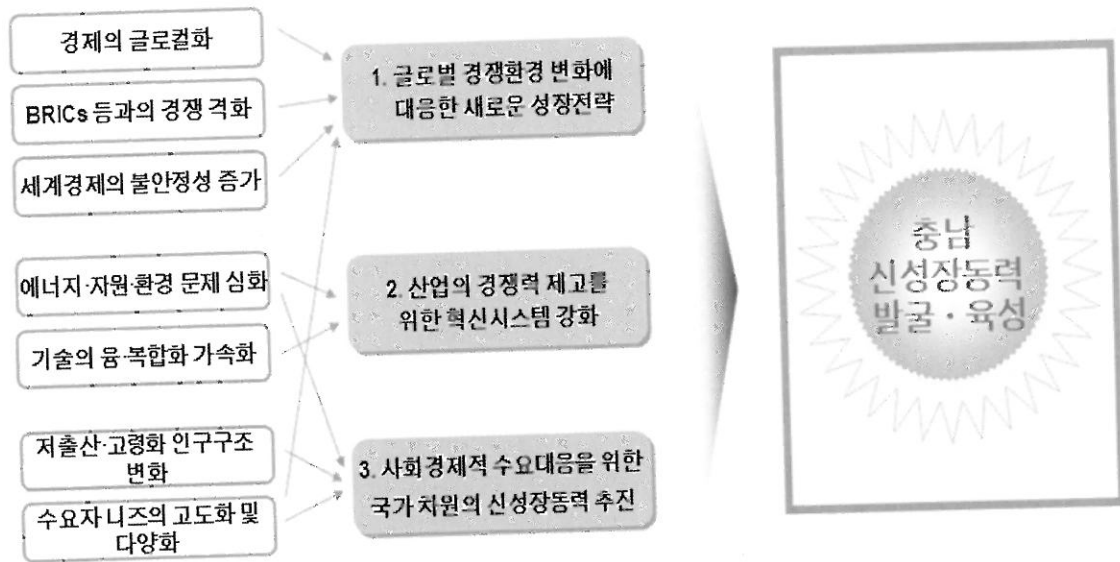
(단위: 개, 조원)

구분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합계
과제 수		79	62	59	200
예산	R&D	3.7	8.8	1.6	14.1
	비R&D	3.0	3.4	3.9	10.4
	소계	6.7	12.2	5.5	24.5

- 국가 차원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본격 추진은 관련 산업투자 및 연구개발, 산학연 참여주체, 인력양성 및 고용, 법·제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 바이오시밀러, LED, 그린카, 로봇 등 핵심동력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및 기업투자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남
- 또한 신성장동력 사업추진은 기존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녹색뉴딜 및 녹색기술 R&D전략,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과 연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정책간 상호연계 및 시너지 창출도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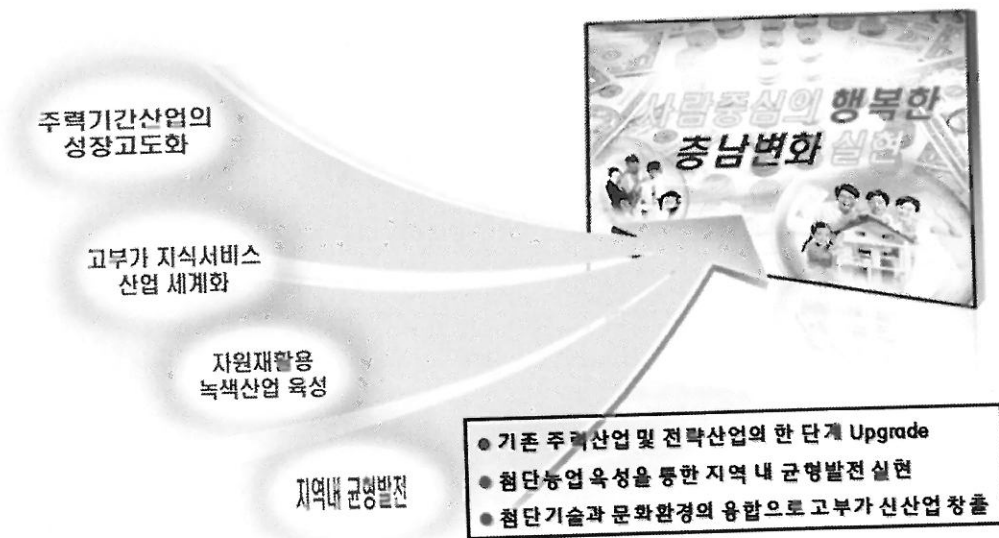
2. 현황

- 현재 충남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으로는 충남의 4대 전략산업과 국가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석유정밀화학산업 및 철강산업 등이 대표적임
-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석유정밀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은 입지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그러나,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 가치화,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기존 주력 산업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은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전자정보산업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 성장기반이나 산업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임
 - 또한, 충남의 주력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석유정밀화학산업 및 철강 산업은 새로운 저탄소·녹색성장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충남은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 추진의 기본틀인 저탄소·녹색성장,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산업인프라, 기업 수준 등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함
- 또한, 현재 4대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분야에 장비구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제품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추진전략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



[충남의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성]

3. 목표(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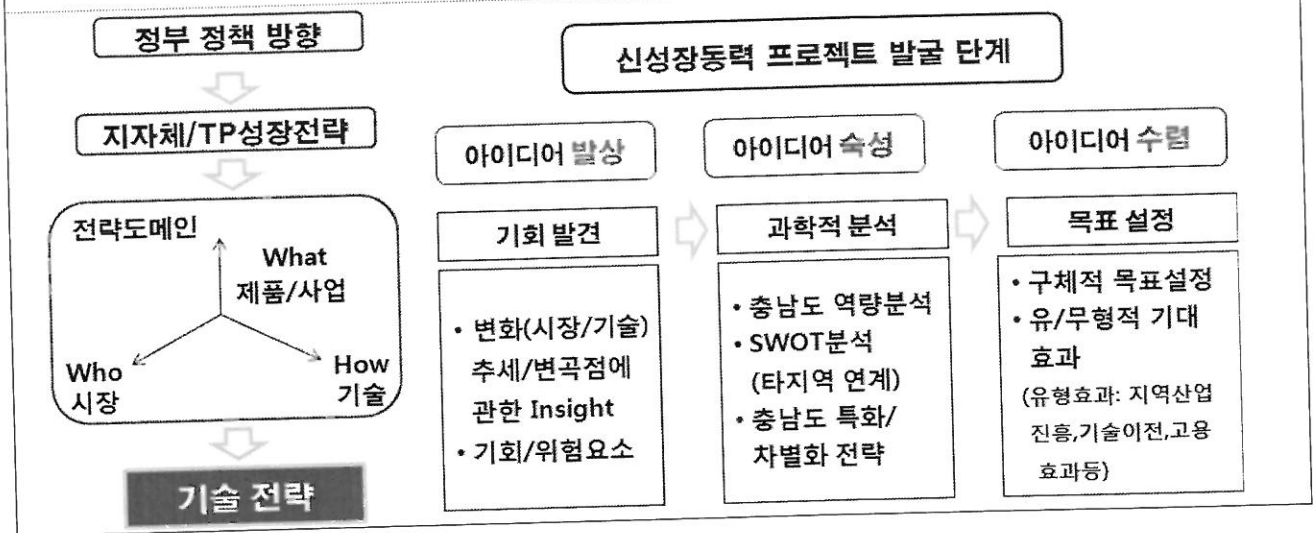


4. 정책방향

- 충남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의 기본전략은 앞서 수행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 등에 기초해 수립되어야 함

<신성장동력 발굴 정책방향>

-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어
- 충남도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관내 전략산업의 성장방향에 맞으며
- 광역권과 연대 협력 가능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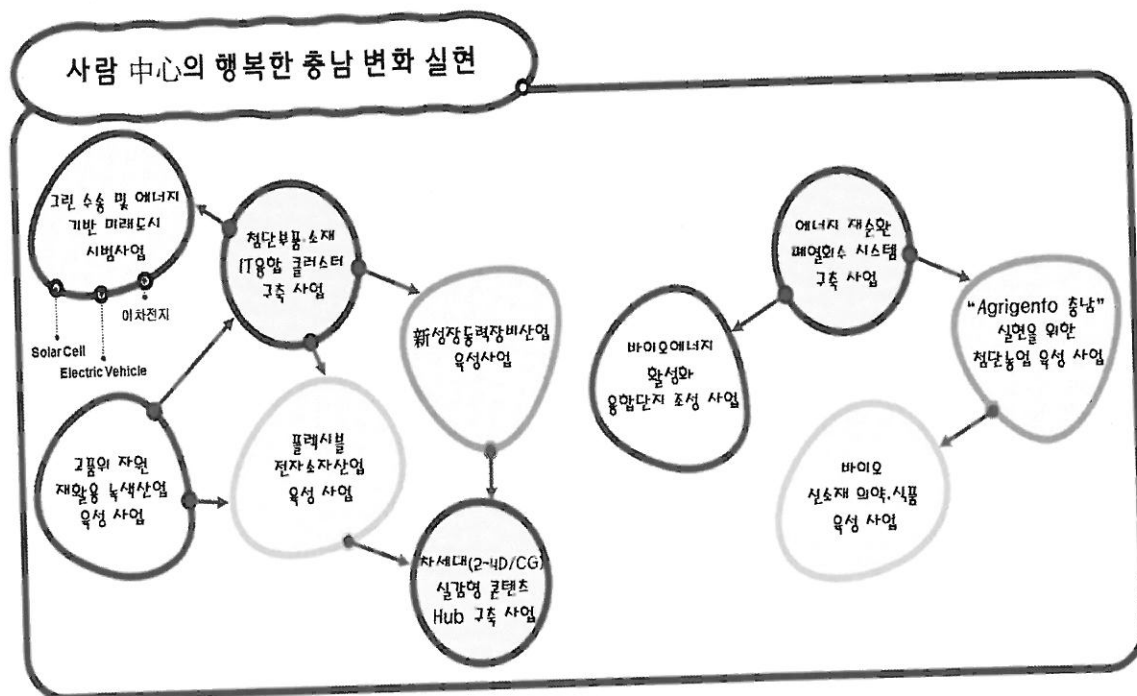


5. 추진전략

- 충남 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은 “사람中心의 행복한 충남 변화” 실현을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전략인 4대 지역전략산업 내실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의 사업추진을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 추진계획과 연계·추진이 필요함
-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신사업이며, 기존 제조업 중심이 아닌 고부가 지식기반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
 - 제조업 중심의 기업집적 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육성이 아닌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집적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육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환경친화적 녹색성장 전략으로 수립 필요
- 또한, 농업 비중이 큰 지역산업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식량 자원 무기화에 대응 및 지역 내 균형발전을 추구해야함
 - 1차 산업의 2,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아닌,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 이러한 전략을 근간으로 하여 발굴된 충남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세부육성계획, 충청남도 민선5기 공약사항들을 고려하여 4대 분야의 사업군으로 편성하였음

4대 분야	10개 신성장동력 Project
주력기간산업의 성장고도화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렉시블 전자소자산업 육성 사업 • 그린 수송 및 에너지 기반 미래도시 시범 사업 • 新성장동력장비산업 육성 사업 • 첨단부품·소재 IT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세계화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2~4D/Computer Graphic) 실감형 콘텐츠 Hub 구축 사업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육성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위 자원 재활용 녹색산업 육성 사업 • 에너지 재순환 폐열회수 시스템 구축 사업 •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융합단지 조성 사업
지역 내 균형발전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igento 충남” 실현을 위한 첨단농업 육성 사업 • 바이오 신소재 의약·식품 육성 사업

- 도출 10개 신성장동력사업은 사업간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음



- 발굴된 충남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정책실현 및 사업 추진 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선정 테마의 심층 분석 및 타당성연구, 세부 전략 도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이를 통한 중앙정부 사업수주로 지역의 한정된 자원 극복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실현하고자 함